

다산포럼



김태희
역사연구자·다산연구소 대표

국가(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강국 명나라가 패망하고 오랑캐라며 낮잡아보던 청나라에게 중원을 내주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실학자 유흥원(1622~1673)은 사사로온 동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과 제도가 사육에 의해 지배받은 결과라는 것이다. 명나라의 패망을 목도한 황종희(1610~1695)는 ‘명이대방록’의 ‘월군’에서 지적했다. “옛날에는 천하가 주인이고 군주가 객이어서, 군주가 일생동안 경영하는 것은 천하를 위해서였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어서, 천하의 어느 곳도 평안하지 못한 것은 군주를 위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私)천하’를 비판하며 천하가 주인인 ‘공(公)천하’를 이상으로 삼았다. 황종희는 같은 책 ‘월신’에서 말했다. “내가 벼슬하는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지 군주를 위한 것이 아니며, 만민을 위한 것이지 군주 일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천하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군주 일가의 흥망에 달려 있지 않고, 만민의 근심과 즐거움에 달려 있다.” 천하와 만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다. ‘천하위공(天下爲公)’이란 말은 ‘예기’의 ‘예운’편에 나온다. 대도가 행해지면 ‘천하위공’의 상태가 되고 그러하

기고



김미경
광주대 보건복지대 학장
차기 한국여성학회 회장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발천인데 찜찜하게 굴지마고 가슴을 짝 펴라~”. 민주화를 갈망하며 대학가 선술집에서 ‘사노라면’을 부르던 1970~80년대는 독재 하 엄혹한 시절이었음에도 청춘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던 시대였다. 개천에서 용이 났고 연애를 하고 가진 것 없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1950년 1인당 GDP 23달러였던 나라가 2016년 GDP 세계 10위에 올랐고 2024년 1인당 GDP 3만6745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최소 4~5명의 아이를 낳았던 그들의 부모세대와 달리 1~2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1세대가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가 되었고 마지막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자식인 MZ세대들은 그 부모세대 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도 연애를 하지 않는다. 결혼도 미루고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 집과 경력까지 포기한 소위 ‘N포세대’라 불리는 그들은 스스로를 ‘희망을 잃은 세대’라고 여긴다. 세계 1위를 갱신하는 이혼율, 저출산율, 자

기고



이현진
경영학 박사·전 목포시청 국장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설렘을 준다. 온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 째로 접어들었다. 오랜 시간 소외감을 느껴온 지역민들은 새 정부 출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지나치게 들뜬 일이 아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 의미를 반추하면서 스스로를 가다듬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수용할 지역 차원의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새 정부 출범법이 호남 특히 목포권에 변화의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기대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는 단지 기대만으로 현실화되지 않는다. 스스로 준비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만 가능해진다. 이제는 지역 발전 구상도 더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할 때다. 국가적 변화는 물론 국제적 흐름과의 연계 속에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국내의 상황은 어떠한가.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

천하위공(天下爲公)과 대동(大同)

여 이뤄진 세상을 대동(大同) 세상이라고 말했다. ‘궁천하’란 특정 세력이 장악한 사사로온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주에 실학박물관 주최로 정재찬장 ‘와금과글 실학’이란 행사가 3일에 걸쳐 열렸다. 필자는 ‘공직가치와 실학’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공직자와 봉공’에 대해 발표했다. ‘봉공’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에게 요구한 세 가지 덕목 중 하나다. 공직자는 공적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니 공(公)을 받드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헌법(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직과 직업 공무원의 차이는 있지만 그 지위와 권한은 공적으로 부여(위임)된 것이다. 권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공직 지위와 권한을 전리품으로 간주하고 사사로이 권한을 남용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이 적지 않았다. 급기야 12·3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켜 사(私)천하를 만들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공공성 훼손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발표는 마침 전날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염려 속에 이뤄졌다. 새 정부는 전임 행정부들이 남긴 반면교사 사례를 잘 참작했으면 한다. 불통, 국민 편가르기, 정제되지 않은 언행, 책임회피, 이중잣대, 무리한 시장 개입, 진영논리에 갇힌 인사 검증실패, 동일 과오의 반복 등 사례가 풍부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공성 저하가 국가의 실

패를 부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했으면 한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처음엔 계엄선포에 대한 심판 요구가 컸으나 나중에 이재명 행정부에 대한 경계심이 일부 작동했던 것 같다. 국정 수행을 잘하면 이러한 경계심은 해소될 것이다. 위헌적 계엄선포 행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꼭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이제 소속 정당이나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 ‘멸사봉공(滅私奉公)’이란 말이 있는데 필자는 좋아하지 않는다. 과거 독재자가 선호했던 말이었을 뿐 아니라 멸사봉공을 크게 외치는 사람이 되레 ‘멸공봉사’하곤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전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거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공동체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억강부약(抑強扶弱)’이란 표현도 별로다. 대통령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어가 아니다. 강자라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 공정·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동 세상을 구현하는 것은 억강부약이 아니라 천하위공이다. 사(私)천하를 만들고 이에 기생하려는 기운이 나라 안팎에서 찾아들지 않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진영논리,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좁은 안목의 경제적 효율성 논리 등이 공공성을 저해한다. 법·제도로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절실하다. 천하위공과 대동의 뜻을 새겨볼 때다.

한국사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살육이 그들이 묵도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한다. 한국전쟁 후 75년 동안 1인당 GDP는 1600배 정도 높아졌다. 우리의 행복지수도 1600배 정도 높아졌을까? 대한민국의 GDP는 이미 2016년에 세계 10위에 도달했지만 1인당 GDP는 세계 30위권이다. OECD국가 삶의 만족도 역시 30위권에 머물러 있다. 가족, 노동, 성평등 정책을 연구하는 필자는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정의롭게 진보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산업화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권과 노동권,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 했다면 발전된 산업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 연대하는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장에서 타당한 주장에 근거해 의사소통을 하는 시민들의 성찰성, 즉 시민 의식이다. 시민의식은 자신의 특권에 대한 성찰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연대를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탄핵 국면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현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그 어떤 계층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의만을 타당한 것이라 주장한다. 본인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고 상대만을 문제라고 한다. 복지국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이득만을 보려고 할 때 작동하지 않는다.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립해

야 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만 작동한다. 일하려고 하지 않고 세금을 내려고도 않으면서 복지혜택만을 누릴려고 한다면 국가는 바로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 타인과 연대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타인을 비판하는 논보다 자신을 성찰하는 안목을 더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타인만을 성찰하는 1차 관찰자의 눈이 아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매일 매일 어떠한 선택을 통해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2차 관찰자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독일 사회학자 루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최근 사회를 비판만 하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사회체계를 만들고 있는가를 성찰할 수 있는 2차 관찰자적 관점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남은 갖고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내려놓고 타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나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타인을 위해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연대할 수 있을 때 차이와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환경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통해 사회체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소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현재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 희망해 본다.

변화의 시대, 전남 서남권이 나아갈 길

고 있으며 기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산업 구조와 경제 질서까지 바뀌는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지역 간 연계 강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는 AI 시대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인구감소 대응, 생활·경제권 통합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남 동부권의 100만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천, 여수, 광양 등은 도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져가고 있다. 반면, 목포권은 여전히 협소한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광역적 비전 수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흐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투자유인 순위에 밀려 기회는 다른 지역의 것이 되고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은 또 다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서남권이 당당한 위상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행정구역 통합과 확장 문제다. 그동안 협소한 행정구역 탓에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번번이 난관에 부딪혀야 했고 지역 발전의 비전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 청년 일자리, 관광 활성화 등 핵심 과제도 풀기 어렵다. 호남

社說

새 정부 호남공약 실천으로 응답하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호남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신속하고 많이 반영될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지역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이후 민주당의 주요 정책인 지역 균형발전 전략 계승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기대를 모으는 호남 공약은 광주의 인공지능(AI) 대표 도시와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과 국립의대 신설 등이 있고 광주·전남 공동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사업을 들 수 있다. 광주, 전남·북을 잇는 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통합으로 문화·관광산업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호남 광역권 공약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과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이다. AI는 모든 도시가 관심을 갖는 미래산업으로

유치전도 치열한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광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항 이전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속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공약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호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고속도로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지원이 시급하다. 호남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에서 전국 1~3위를 석권할 정도로 새 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호남의 대선 공약에 응답할 차례다. 그렇다고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대선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접촉해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시민 담보’ 광주 버스파업 장기화만은…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1년만에 파업을 단행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 파업을 선언한 후 준법운행을 실시하다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광주시가 비노조원 운전기사를 투입해 시내버스 운행률을 80%대로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배차 간격이 늘어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파업의 배경은 노조의 임금 8.2%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에 사측이 별다른 협상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는 타 지역보다 낮은 임금을 도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지만 사측은 막대한 적자에도 운영비의 6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각자의 입장에서선 일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형세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의

발을 담보로 파업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적자 타령을 하면서 광주시가 나서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사측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도 임금인상과 함께 아직 정부 차원에서든 공론화 되지 않은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선부론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을만 하다. 광주 시내버스는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10여년만에 광주시의 재정보조금이 10배 이상 늘어나 지난해에만 1400억원이 넘는 형세를 지원받았다. 노사는 아무런 대책 없이 파업으로 갈등을 빚을 것이 아니라 자구책 마련으로 더이상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된다. ‘대자보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도 노선 개편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 자체에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2016년 3월, 인간과 인공지능(AI)의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제4국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특히 승률 1~2%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승을 이끈 백 78수는 직관과 창의성이 만들어 낸 ‘신의 한 수’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세돌은 AI를 이긴 마지막 인간이 되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AI는 바둑을 넘어 스포츠 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종목은 축구. 잉글랜드의 리버풀·스페인인 FC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명문 구단도 AI 전문가를 영입해 전략카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을 이해해야 경기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100년 넘게 치러진 수많은 경기를 학습하고 개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미드필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패스를 시도할 때 공의 속도와 도달 시간 그리고 공을 받는 선수의 출발반응 등을 반영해 패스 성공 확률을 계산하고, 선수들의 키와 몸무게 점프력 등을 분석해 코너킥 전술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선수의 위치, 패스

경로, 움직임의 패턴 등을 수집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승리 확률을 극대화한다. AI는 선수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하고 스카우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초종교 선수의 데이터가 모두 입력되면 스카우터는 팀의 성장과 조건에 맞는 선수를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축구가 최근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브라질과 독일, 이탈리아·아르헨티나·스페인 등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대기록이다. 하지만 한국은 월드컵 전막기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을 이해해야 경기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100년 넘게 치러진 수많은 경기를 학습하고 개별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단점을 분석한다. 미드필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패스를 시도할 때 공의 속도와 도달 시간 그리고 공을 받는 선수의 출발반응 등을 반영해 패스 성공 확률을 계산하고, 선수들의 키와 몸무게 점프력 등을 분석해 코너킥 전술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선수의 위치, 패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